

영어 자동사 문장에서의 초점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 비교

A Study on the Focus Realization in Intransitive Verb Sentences

김 화 영* · 이 현 정* · 김 기 호*
Hwa-Young Kim · Hyun-Jung Lee · Kee-Ho Kim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se the pattern of the pitch accent realization between the English native speakers and the Korean speakers, using the sentences by the scope of focus including intransitive verbs; unaccusative, unergative, and passiv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glish native speakers produce the intonational patterns similar to the previous study (Hoskins, 1996), which showed that English native speakers deaccented after the focused word for unaccusative and passive verbs in broad focus. Korean speakers, however, have a tendency not to deaccent after the focused word for both verbs. In the narrow subject focus condition, Koreans do not deaccent the verbs after the focused subject. In the narrow verb focus condition, they produce the pitch accent on verbs as the English native speakers do, but they tend to produce the pitch accent on subjects that should not be given any pitch accent. Therefore, unlike the English native speakers, the Korean speakers have a tendency not only that they do not produce three types of intransitive verbs with proper intonation, but also that they do not realize the focus structure itself properly.

Keywords: Focus, Intonation, Pitch Accent, Intransitive Verbs, Unaccusative, Passive, Unergative, Argument

1. 서 론

이제까지 자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사론과 의미론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Perlmutter (1978)는 의미에 따라 통사적으로 자동사를 논항구조에 따른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기저구조에서 동사구 내의 논항(VP-internal argument)이었던 명사구(NP)가 표면구조에서 주어위치로 상승(raising)되는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을 가지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와 기저에서부터 주어위치에 있던 외재논항(external argument)을 가지는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가 그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정보구조(informational structure)와 관련해서 초점(focus)이 억양(intonation)이라는 운율요소를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자동사에 대한 논의 역시 초점의 영역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초점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본 논문에서 주로 언급하게 될 초점의 영역에 따른 분류를 잠시 설명하고자 한다. Gundel (1994)에 따르면 초점이란, 문장내의 한 요소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거나 다른 요소와 대조되어 강조되고, 운율적으로 돌출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Gundel은 초점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심리초점(psychological focus), 의미초점(semantic focus),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자의 관심대상이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초점을 제외하고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초점과 대조초점만을 언급하겠다. 초점은 영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광의초점(broad focus)과 협의초점(narrow focus)이 그것이다. 광의초점은 구(phrase)나 문장전체가 초점이 되는 것으로 타동사문장(ex. S+V+O)의 경우 가장 마지막 강세받을 여지가 있는 단어에 액센트가 부여된다. 협의초점은 의미초점과 대조초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의미초점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표시해주는 개념으로서 주로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에서 초점의 형태가 드러난다. 대조초점은 문장 내의 한 요소가 새로운 정보가 아니더라도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대조되고 있을 때 돌출되게 되는 현상으로 주로 Yes/No 의문문의 답변으로 나타난다.

자동사구문은 일반적으로 광의초점의 경우에 주어에 강세가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동사구문의 강세부여에 대해 Selkirk (1995)에서는 내재논항을 갖는 비대격동사의 경우, 동사구내 논항이었다가 명사구상승에 의해 주어위치로 올라간 명사구는 원래 동사구내의 위치에 자취(trace)를 남기는데, LF 단계에서 상승된 명사구와 자취와의 연결(chain)에 의해 강세가 부여되어 표면적으로는 주어가 액센트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Selkirk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Hoskins (1996)는 이를 실험음성학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재논항을 갖는 비대격동사와 외재논항을 갖는 비능격동사, 그리고 수동태문장을 대상으로 음성실험을 행하였다. 수동태문장의 경우는 원래 타동사구문이었지만 수동화됨으로 인해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상승되는 결과가 마치 비대격동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Hoskins의 실험결과, 기본적으로 논항을 두개 가지고 있는 문장(S+V+O)의 발화실현 양상과는 달리 논항을 한 개 가지고 있는 문장 즉, 자동사를 가지는 문장의 발화실현 양상은 자동사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발화특성을 보인다. 특히 광의초점일 경우에는 모두 주어에 피치액센트가 오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비대격동사와 수동태는 기저형에서 내재논항을 가지고 있던 것이 표면형에서는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게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억양은 모두 액센트가 해지(deaccented)된다. 반면에 비능격동사는 외재논항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써 주어와 동사 모두에 액센트가 부여되어 액센트가 해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협의초점의 경우에는, 주어협의초점의 경우 주어에만 피치액센트가 부여되고 나머지는 액센트해지된다(H*, L-L%). 동사협의초점일 때는 주어에는 액센트가 부여되지 않고 동사에만 피치액센트가 부여된다(X, H*L-L%; 여기서 X는 액센트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함).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은 첫째, 자동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초점영역 즉, 광의초점과 협의초점에 따라 원어인 화자의 실현양상을 확인한 후, 한국인 화자의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협의초점의 경우 초점을 받는

위치에 따라 올바르게 발화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비대격 문장과 수동태 문장의 경우, 주어에 협의초점이 올 때 초점을 받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는 액센트해지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화자들이 논항구조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발화하는지 살펴보고 영어교육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Hoskins (1996)의 실험을 근거로 하여 자동사의 유형에 따른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의 억양의 실현양상과 더불어 초점의 영역에 따른 억양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의 실험이 행해졌는데, 실험 1은 비대격동사, 비능격동사, 수동태 문장에 대해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가 각각 어떠한 식으로 억양을 구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에서 영어원어민화자의 동사협의초점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인지실험이다.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들이 각각 동사협의초점으로 문장을 발화한 것을 실험 1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영어원어민화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봄으로써 실험1의 동사협의초점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1 실험 1

2.1.1 실험 목적

실험 1은 세 가지 유형의 자동사 문장이 초점의 영역에 따라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 각각 어떠한 억양유형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1.2 실험 문장

실험 문장은 자연스러운 자동사문장의 발화를 위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었다. 답으로 구성된 문장들은 각각 자동사의 유형에 따라 비대격 동사유형 3 개, 비능격 동사유형 3 개, 수동태 유형 3 개로 총 9 개가 만들어졌다.

- | | | |
|-----------|-----------------------|---------|
| 1. 비대격 유형 | I think his dinner | burned. |
| | I think his ice-cream | melted. |
| | I think the sun | set. |
| | H* | L-L% |

- | | | |
|-----------|--------------------|-------------|
| 2. 수동태 유형 | I think his letter | was mailed. |
| | I think his book | was edited. |
| | I think his bread | was baked. |
| | H* | L-L% |

3. 비능격 유형	I think his lawyer	lied.
	I think his daughter	walked.
	I think his baby	grinned.
	H*	H* L-L%

위의 9 문장 각각은 초점영역에 따른 다음의 5 가지 질문의 답이다.

- Q1: What happened while he was gone? (광의초점)
 Q2: What burned? (주어 의미초점: 협의초점)
 Q3: What happened to his dinner? (동사 의미초점: 협의초점)
 Q4: Did his lunch burn? (주어 대조초점: 협의초점)
 Q5: Did his dinner boil? (동사 대조초점: 협의초점)

Answer: "I think his dinner burned." (Q4와 Q5의 경우는 "No, his dinner burned.")

질문은 광의초점 및 의미초점에 관한 질문 3 개와 대조초점을 포함한 2 개의 질문으로 총 5 개의 초점 영역이 구성되어 45 개의 발화 문장이 완성되었다.

· 2.1.3 실험 방법

본 실험에는 3 명의 영어원어민화자(남성 2 명, 여성 1 명)와 5 명의 한국인화자(남성 3 명, 여성 2 명)¹⁾로 총 8 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위의 실험 문장을 영어원어민화자 3 명에게 3 번씩 발화하도록 하여서 발화한 문장의 합계는 405 개가 되었다. 한국인화자 3 명에게는 2 번씩 발화, 나머지 2 명에게는 3 번씩 발화하도록 하여 총 540 개의 문장이 발화되었다.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에게 녹음을 하기 전에 앞서 미리 녹음 대본을 주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실험자가 질문하고 피험자가 대답하거나, 피험자들끼리 질문과 대답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은 SONY DAT 녹음기를 사용하여 44,000 Hz의 표본율(sampling rate)로 녹음하였고 SHURE SM58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PitchWorks 6.0과 PC Quirer 6.0을 사용하였다. 이론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Pierrehumbert (1980)의 억양음운론(Intonational Phonology)을 이용하였다.

1) 한국인 화자는 처음에 TOEFL 성적으로 분류해보았는데, PBT에서의 성적이 600 점 이상인 화자 2 명과 500 점 이상인 화자 3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영어능력에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실험결과 자동사의 경우에는 그다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특히 600 점 이상 화자의 경우에도 어느 곳에 강세를 주어야 될지 안다 할지라도 실제 발화에서는 제대로 억양을 구현하여 발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집단의 피험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였다.

2.1.4 실험 1 결과

2.1.4.1 광의초점

2.1.4.1.1 영어원어민화자

총 45 개의 문장을 3 번씩 발화한 3 명의 영어원어민화자들은 자동사 유형별로 표 1과 같은 억양패턴을 보였다. 이들이 발화한 문장은 총 405 개이고 각각의 자동사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억양패턴과 빈도수 또한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영어원어민화자의 광의초점에서의 대표적인 억양패턴과 발화 빈도수 (단위: %)

주어, 동사	비대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H*, L-L%	81	44	0
H*, H*(L)-L%	18.5	44	74
X, H*L-L%	0	11	26

(X: 액센트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원어민화자는 광의초점에서 비대격문장의 경우 주어에만 액센트를 주는 H*, L-L%(81%)를, 비능격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모두에 액센트를 주는 H*, H*(L)-L%(74%)로 발화하였고, 수동태문장의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비율로 H*, L-L%와 H*, H*(L)-L%로 발화하였음을 보였다. 이들의 억양곡선을 살펴보면 그림 1부터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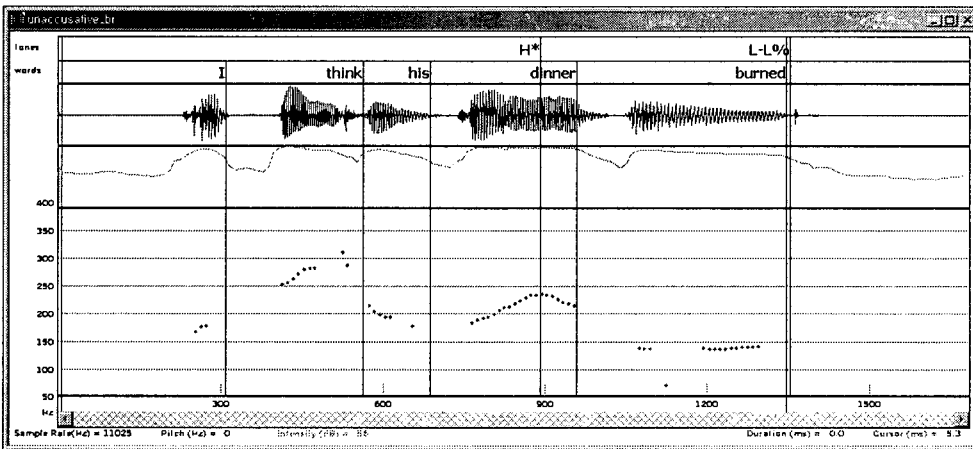


그림 1. 영어원어민화자의 비대격문장 억양패턴 (I think his dinner burned.)

그림 1은 영어원어민화자가 비대격문장을 발화한 것으로 주어인 'dinner'에 피치 액센트가 H*로 실현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액센트해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사적으로 비대격동사의 논항구조에 따라 기저형에서 내재논항(피동체(theme))이었던 'dinner'가 주어자리로 이동하여 피동체가 주어가 되었다. 이는 자동사 문장에서 광의초점일 경우 술어보다 논항에 피치 액센트가 올 확률이 크다고 주장한 Gussenhoven (1983)의 이론과도 상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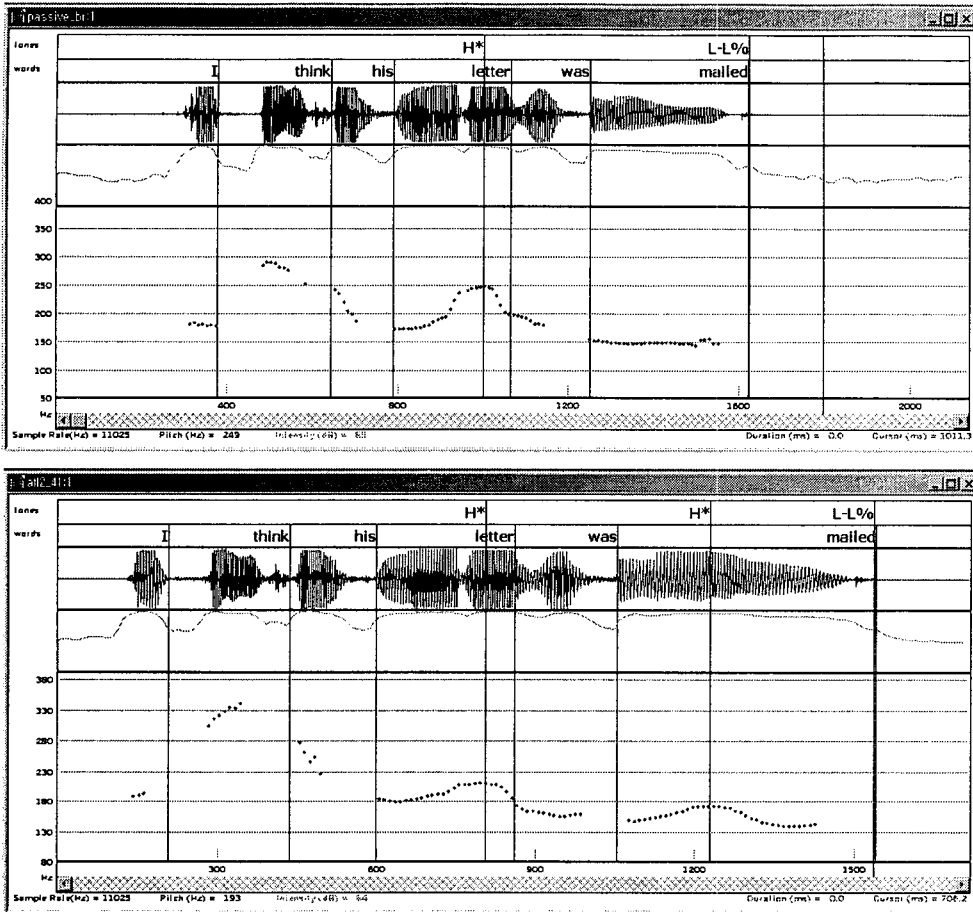


그림 2. 영어원어민화자의 수동태문장 억양패턴 I(위)과 패턴 II(아래)
(I think his letter was mailed.)

그림 2는 영어원어민화자의 수동태 발화의 억양실현 양상이고 비대격 문장과 유사하게 기저형에서 능동문의 내재논항이던 'his letter'가 수동태가 되면서 주어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패턴 I의 경우에는 주어인 'his letter'가 피치액센트를 받고 나머지는 액센트 해지가 되었다. 패턴 II는 패턴 I의 경우와는 달리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래 타동사이던 것이 자동사화 되면서 비대격동사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던 기존의 연구(Hoskins, 1996)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패턴(H*, L-L%와 H*, H* L-L%)이 높지는 않지만 같은 44%의 비율로 각각 나타났다. 확실한 것은 본래 자동사인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가 Hoskins의 실험결과와 같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수동태의 경우는 본래 타동사가 자동사화 되면서 억양구현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못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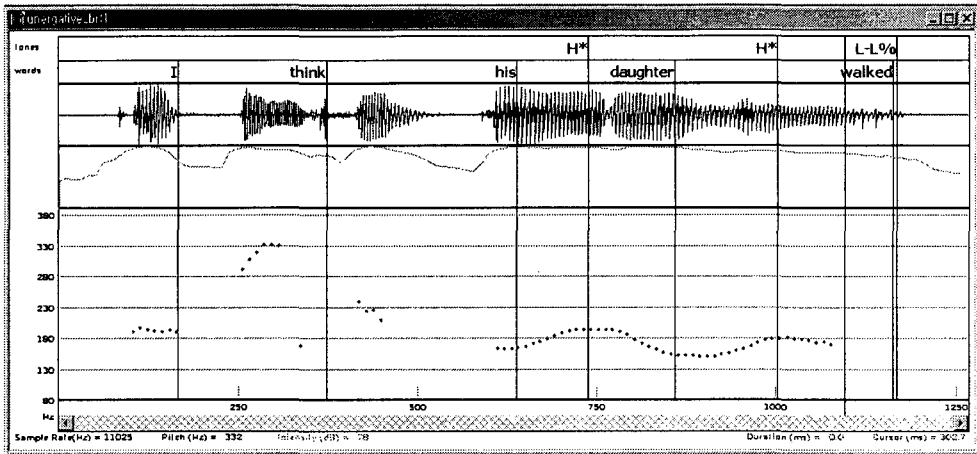


그림 3. 영어원어민화자의 비능격문장 (I think his daughter walked.)

그림 3은 영어원어민화자가 비능격동사문장을 발화한 경우이다. 비능격동사는 행위주 (agent) 외재논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저형과 표면형의 구조가 같다. 이때 나타나는 억양의 특징은 주어와 동사에 모두 피치액센트가 온다는 것이다. 영어원어민화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74%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발화하였다.

2.1.4.1.2 한국인화자

한국인이 발화한 각각의 자동사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억양패턴과 빈도수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인화자의 억양패턴과 발화 빈도수 (단위: %)

주어, 동사	비대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H*, L-L%	48.5	42	54.5
H*, H*(L)-L%	48.5	54.5	36
X, H*L-L%	2.8	3	9

한국인의 경우에는 영어원어민화자의 발화 때와는 달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즉, 광의초점일 경우에 한국인화자들은 자동사의 유형에 따라 억양을 정확히 구별하여 발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느 유형의 문장이든 H*, L-L%와 H*, H*(L)-L% 두 패턴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유형의 문장이라도 억양을 일관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모두 자동사이지만 논항구조와 관련해서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율적으로도 다른 억양곡선이 실현된다. 영어원어민화자들은 통사적으로 논항구조에 따라 자동사 문장들을 쉽게 구현하였으나 한국인화자들은 영어원어민화자와 같이 일관된 억양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2 협의초점

협의초점은 각각 주어협의초점과 동사협의초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각각 다시 의미초점과 대조초점으로 나누었다. 협의초점은 광의초점에서와는 달리 논항구조와는 큰 관련은 없다. 주어에 협의초점이 주어지면 주어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될 것이고 동사에 협의초점이 주어지면 당연히 동사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논항구조와는 별개로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간의 초점에 따른 억양 실현양상과 주어협의초점에서의 액센트해지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1.4.2.1 영어원어민화자

우선 주어협의초점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어협의초점은 본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유형의 문장들 모두가 주어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됨을 다음 표 3을 통해 볼 수 있다.

표 3. 영어원어민화자의 주어협의초점

(단위: %)

주어, 동사		비대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H*, L-L%	SF	96	92.5	85
	CF	100	100	100
H*, H*L-L%	SF	0	7	14.8
	CF	0	0	0
X, H*L-L%	SF	3	0	0
	CF	0	0	0

(SF: 의미초점(semantic focus), CF: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협의초점이 주어지면 영어원어민화자들은 주어에만 피치액센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액센트 해지시키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H*, L-L%). 협의초점의 경우에는 자동사의 유형과 큰 관련이 없다. 그림 4에서 그림 6은 자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주어에 실현된 피치 액센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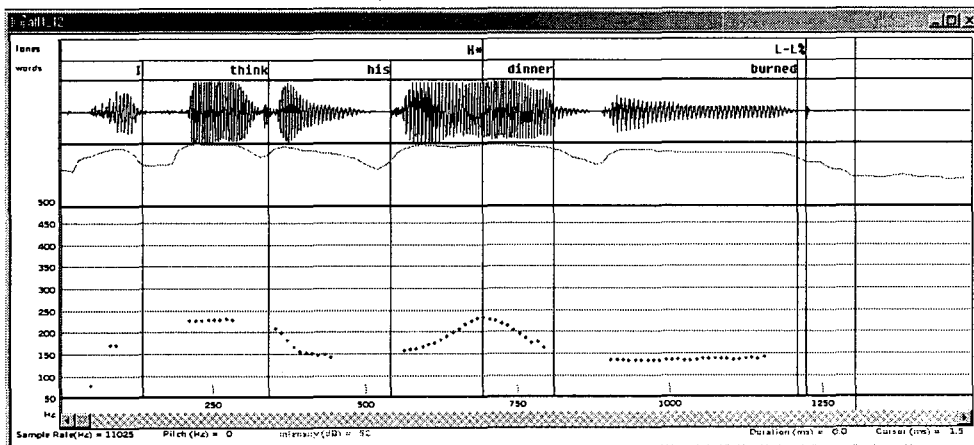


그림 4. 비대격문장에 주어협의초점이 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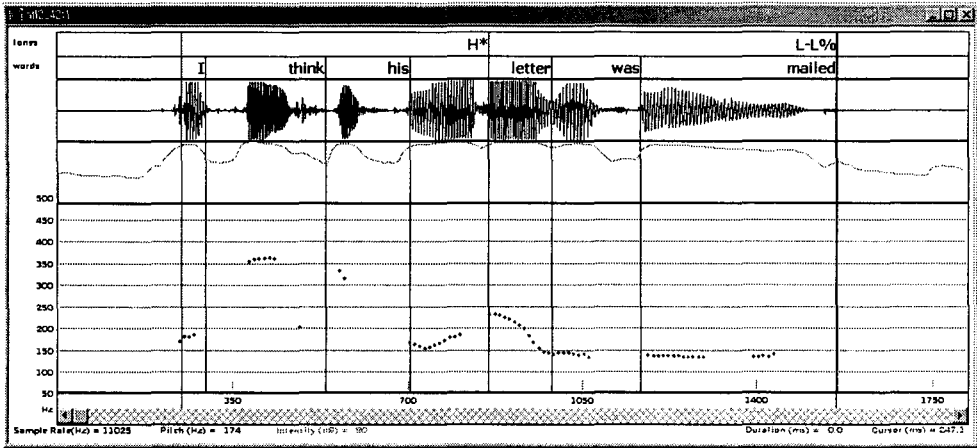


그림 5. 수동태 문장에 주어협의초점이 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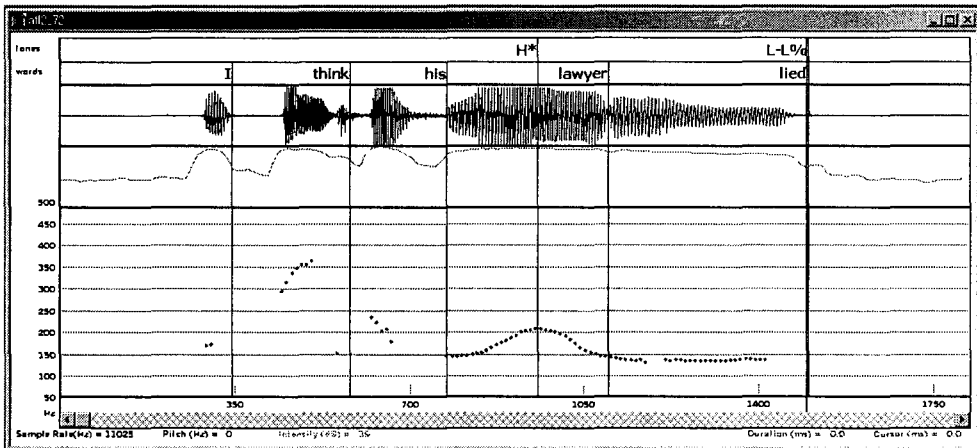


그림 6. 비능격문장에 주어협의초점이 온 경우

동사협의초점을 받은 경우는 주어협의초점을 받은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영어원어민화자의 동사협의초점

(단위: %)

주어, 동사		비능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X, H*L-L%	SF	48	44	62.9
	CF	22	25.9	37
H*,H*L-L%	SF	40	51	37
	CF	77.7	70	62
H*, L-L%	SF	11	3	0
	CF	0	3	0

H*, L-L%가 높은 비율로 실현되던 주어협의초점과는 달리 동사협의초점에서는 두드러지게 대표되는 억양 곡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동사협의초점을 받으면 X, H* L-L%로 실현된다는 Hoskins의 주장과는 달리 본 실험에서는 X, H* L-L%와 H*, H* L-L% 두 억양 곡선이 모두 나타났다. 오히려 대조초점의 경우에는 H*, H* L-L%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적으로 동사협의초점의 경우에 나타나는 H*, H* L-L%의 억양 곡선은 주어의 음역보다 동사의 음역이 낮게 나타났지만 주어에 오는 피치액센트인 H*보다 동사에 오는 피치 액센트 H*가 보다 크게(louder) 들리고, 음절의 길이(duration)도 또한 다른 음절들에 비해 길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에만 액센트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앞에 오는 주어보다 피치 높이가 훨씬 높지만, 주어와 동사 모두에 액센트가 오는 경우에도 주어와 동사 각각의 억양 곡선은 그 높이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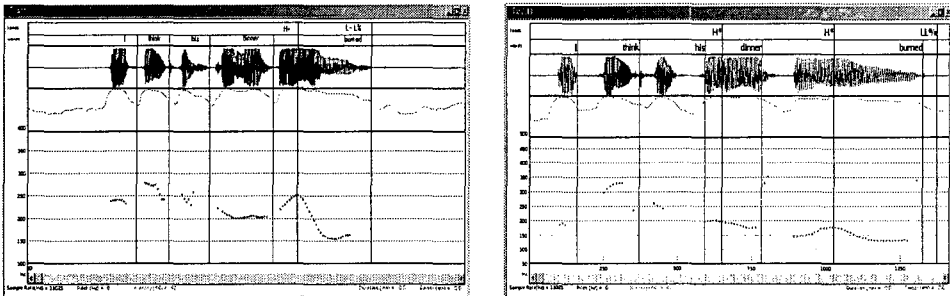


그림 7. 영어원어민화자의 동사협의초점. X, H* L-L%(왼쪽)와 H*, H* L-L%(오른쪽)

2.1.4.2.2 한국인화자

영어원어민화자의 주어협의초점 실현 결과와 같이 한국인화자의 주어협의초점의 억양패턴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인화자의 주어협의초점 (단위: %)

주어, 동사		비대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H*, L-L%	SF	66	42	66.6
	CF	77.7	36	75
H*, H*L-L%	SF	33.3	57.5	33
	CF	22.2	63.8	19
X, H*L-L%	SF	0	0	5.5
	CF	0	0	0

한국인화자들은 비대격문장과 비능격문장에서 H*, L-L%의 억양곡선을 높은 비율로 발화하였으나 수동태 문장에서는 오히려 H*, H* L-L%가 H*, L-L%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격문장과 비능격문장에서의 H*, H* L-L%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림 8, 9는 각각 주어협의초점 발화를 제대로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8은 'dinner'에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액센트해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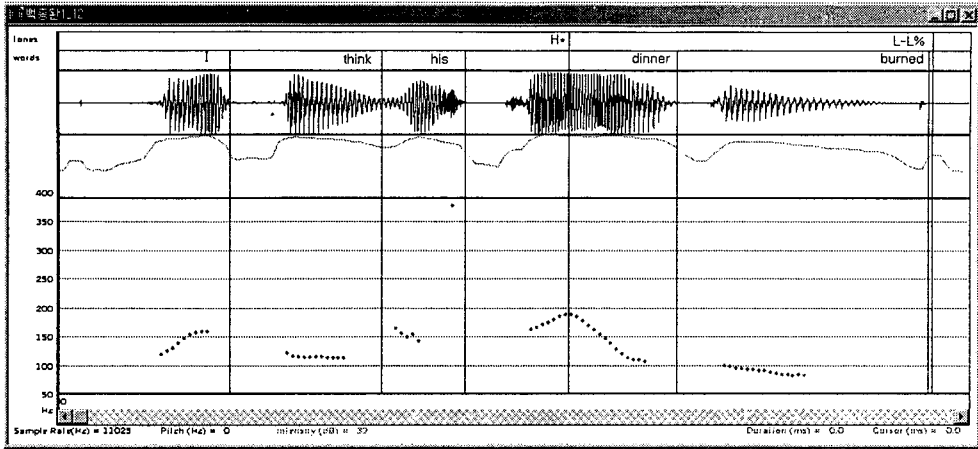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인화자의 주어협의초점 억양곡선. H* L-L%로 발화한 경우
 I think his dinner burned.
 H* L-L%

반면에 그림 9는 주어에 협의초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액센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비대격문장과 비능격문장에서보다 수동태 문장에서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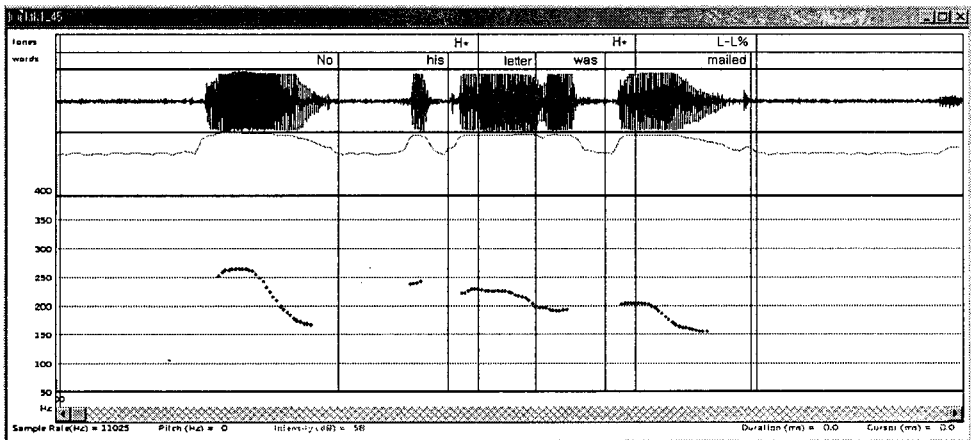


그림 9. 한국인화자의 주어협의초점 억양곡선. H*, H* L-L%
 No, his letter was mailed.
 H* H* L-L%

주목할 점은 한국인화자들은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어협의초점의 억양곡선을 정확하게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용의 이해와 더불어 화자들은 어디에 강세를 둘 것인지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억양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화자들의 의도와는 일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주어협의초점의 경우와는 달리 동사협의초점발화는 한국인화자들에게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은 한국인화자들이 발화한 동사협의초점이다.

표 6. 한국인화자의 동사협의초점

(단위: %)

주어, 동사		비대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X, H*L-L%	SF	16	17	25
	CF	14	8	33
H*, H*L-L%	SF	47	54	48
	CF	45	61	41
H*, L-L%	SF	36	28	25
	CF	40	29	25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X, H* L-L%, H*, H* L-L%, H*, L-L%의 세 가지 억양곡선 발화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2.1.5 실험 1의 결과 요약 및 논의

실험 1의 결과, 광의초점에서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에는, 비대격동사문장에서 H*, L-L% 억양패턴을, 비능격동사 문장에서 H*, H*L-L% 억양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한국인화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동사 분류에 따른 억양의 차이를 구분하여 발화하지 못하였다. 주어협의초점에서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에는, 의미초점과 대조초점의 두 경우 모두에서 H*, L-L% 억양패턴을 보인다. 한국인화자의 경우에는 H*, L-L%뿐 아니라 H*, H*L-L% 억양패턴을 보임으로써 액센트헤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주어협의초점과는 달리 동사협의초점에서는 영어원어민화자나 한국인화자 모두 일관된 억양패턴을 보이지 못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 앞서 관찰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 X, H* L-L%와 H*, H* L-L% 두 억양 곡선이 모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주어에 오는 피치액센트인 H*보다 동사에 오는 피치액센트 H*가 보다 크게(louder) 들리고, 음절의 길이(duration)도 또한 다른 음절들에 비해 길었던 점을 미루어 H*, H* L-L%로 실현된 억양도 동사에 피치액센트가 부여된 것과 동일하게 동사협의초점을 구현하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실험에서는 동사협의초점의 경우에 다음의 2.2에서와 같은 지각실험을 실시하였다.

2.2 실험 2: 동사협의초점에 대한 지각실험

2.2.1 실험 목적

동사협의초점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 의하자면 동사에만 피치액센트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주어와 동사 모두에 부여된 경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록 피치액센트가 두 곳 모두에 실현이 되었더라도 지각적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준 것인지 돌돌리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2.2.2 실험 자료 및 방법

지각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실험1에서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엑센트를 부여하여 동사 협의초점을 발화한 문장들 중에서 영어원어민화자가 발화한 7 개의 문장과 한국인화자가 발화한 5 개의 문장으로 총 12 개의 문장을 구성하여 영어원어민화자에게 들려주었다. 피험자로는 실험 1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영어원어민화자 3 명이 참여하였다.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엑센트가 부여된 문장을 피험자에게 들려준 후 어느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주어와 동사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강하게 들리는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지각 실험의 문제는 다음의 (1)의 예와 같다.

(1) 지각 실험의 예.

피험자에게 들려준 문장: I think his dinner burned.

H* H* L-L%

피험자가 답해야 할 질문: ○ What happened to his dinner?

○ What burned?

(Prominence : Subject, Verb)

2.2.3 실험 결과

2.2.3.1 영어원어민화자의 문장

영어원어민화자가 발화한 동사협의초점에 대한 7 개의 문장(주어와 동사에 모두 엑센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 명의 영어원어민화자가 인지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영어원어민화자의 발화를 다른 영어원어민화자에게 들려준 지각 실험 결과

(동사협의초점) H*, H* L-L%	문항수	정답	돋들림 (prominence) 주어/동사	정답률(%)
원어민 A	7	7	동사	100
원어민 B	7	7	동사	100
원어민 C	7	7	동사	100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 실험에 참여한 3 명의 영어원어민화자들은 녹음된 발화를 듣고 적절한 질문을 정확하게 답하고 모두 동사가 돋들리게 들리는 것으로 답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운적으로는 주어와 동사에 모두 피치엑센트가 부여되었더라도 음향, 음성적으로 동사의 음절 길이가 길고 원어민의 지각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에 따라 두 억양곡선을 모두 동사협의초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아래 표 8은 X, H* L-L%와 H*, H* L-L%의 두 억양 곡선을 합친 것이다.

표 8. 영어원어민화자의 동사협의초점

(단위: %)

주어, 동사		비대격문장	수동태문장	비능격문장
X, H* L-L%	SF	88.9	96.3	100
H*, H* L-L%	CF	100	96.3	100
H*, L-L%	SF	11	3	0
	CF	0	3	0

(X, H* L-L%와 H*, H* L-L%를 하나로 본 경우)

표 8과 같이 결과적으로 영어원어민화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동사협의초점을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3.2 한국인화자의 문장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처럼 X, H* L-L%와 H*, H* L-L%를 동일하게 하나의 동사협의초점을 발화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지각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사협의초점을 H*, H* L-L%로 발화한 한국인화자의 5 개의 문장들을 다른 영어원어민화자들에게 들려준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답을 하도록 하였다. 지각 실험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한국인화자의 발화를 영어원어민화자들에게 들려준 지각 실험 결과

(동사협의초점) H*, H* L-L%	문항수	정답	오답	돋들림 (prominence)			정답률(%)
				주어	동사	X	
원어민 A	5	2	3	0	2	3	40
원어민 B	5	1	4	0	3	2	20
원어민 C	5	2	3	0	2	3	40

(X: 주어와 동사 중 어느 곳이 강하게 들리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

피험자들은 한국인화자의 발화문장을 듣고 적절한 질문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 9를 보면 5 개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50%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원어민화자들에게는 주어와 동사 중에서 돋들리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인화자의 발화 결과에서 X, H* L-L%와 H*, H* L-L% 억양패턴을 동일한 하나의 동사협의초점 발화로 보는 것은 어렵다. 결국 한국인화자들은 주어협의초점의 발화와 마찬가지로 초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는 있을지 모르나 억양구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사적으로 자동사를 논항구조에 따라 구분하고 음성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원어민화자와 한국인화자의 억양구현 양상과 초점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광의초점에서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에는, 비대격동사문장에서 H*, L-L% 억양패턴을, 비능격동사문장에서 H*, H*L-L% 억양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수동태문장의 경우에는 기존연구와 같이 분명한 억양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동태문장이 원래 자동사인 비대격동사와 통사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본래 타동사가 자동사화 되면서 억양구현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못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화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동사 분류에 따른 억양의 차이를 구분하여 발화하지 못하였다.

주어협의초점에서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에는, 의미초점과 대조초점의 두 경우 모두에서 H*, L-L% 억양패턴을 보인다. 한국인화자의 경우에는 H*, L-L%뿐 아니라 H*, H*L-L% 억양패턴을 보임으로써 액센트해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동사협의초점에서 영어원어민화자의 경우에는, 지각실험을 통해 동사에 초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나, 한국인화자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모두에 H*를 부여하였으나 지각적으로 두 H* 사이에 큰 돌들림이 구분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영어원어민화자는 자동사의 논항구조에 따라 달리 억양구현을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인화자는 이를 잘 발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각실험에서도 드러났듯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각실험 결과, 영어원어민화자는 초점부여 여부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화자의 발화 지각에 의미구분의 모호함을 느끼는 것은, 실제 의사소통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다 정확한 억양 구현에 이러한 초점 발화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태구. 2001. *논항구조와 영어 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 Gundel, J. K. 1994.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 (ed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1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Semantics*, 457-466.
- Gussenhoven, C. G. 1983. "Focus, Mode and the Nucleus." *Journal of Linguistics*, 19: 377-419.
- Hoskins, S. 1996. "A Phonetic Study of Focus in Intransitive Verb Sentences." *Proceedings of ICSLP 96*.
- Ladd, D. R.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lmutter, 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ed. J. Jaeger et al., 157-189.

Pierrehumbert, J.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Selkirk, E. O. 1995.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Phrasing." In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ed.) John A. Goldsmith. 550-569. Cambridge: Blackwell.

접수일자: 2002. 7. 28.

게재결정: 2002. 9. 4.

▲ 김화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hy2k@lycos.co.kr

▲ 이현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angrypyium@hotmail.com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O)

E-mail: keehokim@korea.ac.kr